

타운뉴스 종교면은 교회, 사찰, 성당 등 종교기관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귀 기관에서 홍보하고 싶은 행사나 기사거리가 있으면 이메일 (info@townnewsusa.com) 또는 전화 (714-530-1367) 로 알려주세요.

종교



자신을 아는 것이 천국이다(마태 21,28~32)

이웃사랑 나눔 행사

갈보리선교교회



▲ 갈보리선교교회 소망회의 '이웃사랑 나눔 행사' 모습. 사진=갈보리선교교회

부에나파크 갈보리선교교회(담임목사 심상은, 8700 Stanton Ave., Buena Park, CA 90620)의 소망회(회장 김경용)가 지난 4일 이 교회 주차장에서 제2차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열었다.

소망회는 이날 200여 명의 저소득 및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게 쌀과 라면, 김, 비누, 감자, 양파 등의 식품을 전달했다.

소망회는 지난 4월 16일 같은 장소에서 제1차 이웃사랑 나눔 행사를 가진 바 있다.

제41차 정기총회

미주성결교회

미주성결교회 제41차 미주정기총회가 오는 29~30일 온라인 화상회의로 열린다.

미주총회 임원회는 지난 4일 임원회의를 열고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총회를 화상회의 방식으로 총회를 진행하기로 했다. 당초 미주성결교회총회는 5월 4~8일 캐나다 퀘벡거리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오는 9월 14~17일로 연기됐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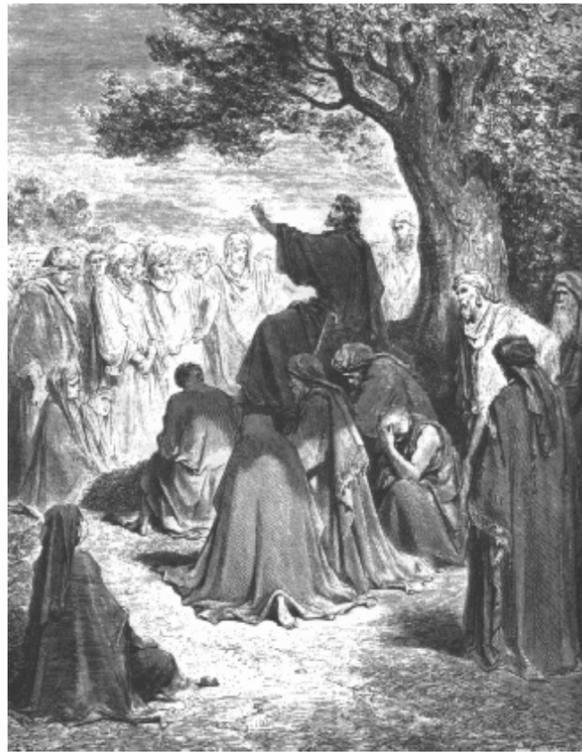
이번 총회에서는 미주 총회장과 부총회장 등 미주총회를 이끌어갈 임원진을 선출할 예정이다. 총회장 후보에는 김동욱 목사(캐나다 큰나무교회 담임), 부총회장 후보에는 윤석형 목사(토렌스 산샘교회 담임)이 단독 입후보한 상태여서 이번이 없는 한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있다.

신앙의 열매를 세속의 눈으로만 본다면 참으로 '요지경'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을 형편없이 개관으로 살았던 자들이 하나님의 칭찬을 받아 천당에 일찍 들어가는가 하면 열심히 경건하게 살았던 자들은 주님의 호된 꾸지람을 받아 천당문 밖에서 방황하기도 합니다. 오늘 복음에서의 주님 말씀은 가히 충격적입니다.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고 있다” (마태 21,31). 이게 얼마나 큰 모순이요 충격적인 발언입니까? 유대인들로부터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도대체 창녀들만 못하며 도둑이나 세리만도 못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새겨 들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왜 유대교에서 존경받는 대사제와 원로들이 창녀나 도둑만도 못하다는 꾸지람을 하시느냐? 아주 뻔한 것입니다. 도둑이나 창녀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매달릴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사제와 원로들은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천당과 지옥의 차이입니다.

남은 잘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은 모르고 있다면 그처럼 어리석은 불행도 없습니다. 성서에 보면 분명히 그렇습니다. 자기 죄를 알고 있다는 것은 이미 천당에 가까이 와 있다는 것이요, 자기 죄를 모르고 있다



옛날 어떤 임금이 교도소를 순시하게 되었는데 그때 죄수들이 임금에게 자신들은 아무 죄도 없는데 억울하게 들어왔다고 하소연을 하더군요. 임금은 그러냐고 하면서 그들을 동정해 주었는데 마지막 한 사람만은 아무 말도 못하고 훌쩍 훌쩍 울고 있더군요.

그래서 사연을 들어 보니 자기는 죄가 많아서 임금님 앞에 머리를 들 수 없는 처지라고 한탄하더군요. 이때 왕이 신하들에게 그랬습니다. 이곳은 죄 없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곳인데 왜 죄인을 이곳에 들여보냈느냐고. 그래서 그 죄인은 그 날로 석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을 알아야 합니다. 요즘 흔한 말로 '주제파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이 주제파악이 안 되면 아주 피곤합니다. 구제불능입니다. 하나님은 무슨 잘못이나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주제파악이 안 되는 죄만은 용서가 안 됩니다. 용서를 하시고 싶어도 계속 감추고 숨기고 있기 때문에 용서받지 못합니다.

신앙은 어찌보면 어리석은 삶입니다. 첫째가 꼴찌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말씀은 깊이 새겨들어야 합니다. 남의 허물을 보기에 앞서서 자신의 잘못을 바로 보도록 합시다. 이것이 잘 살고 잘 믿는 길입니다.

-강길웅 신부-

면 그는 여전히 천당에서 멀리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또는 얼마나 큰 죄를 짓느냐 하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인정하고 고백하면 됩니다.

십자가 옆의 강도는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매달려 자비를 빌었을 때 그는 이미 낙원을 약속 받았습니다. 도둑이었던 세리도 자신이 부정직하고 욕심이 많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기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했을 때 그는 이미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바리사이파 사람은 자신의 공로는 아주 잘 알고 있었지만 자신에게 믿음이 없고 사랑이 부족하며 용서가 없었고 그리고 이웃을 너무도 무시했던 자신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불행했습니다.

타운뉴스 업소록

“리스팅 신청하세요!”

타운뉴스 업소록 신청서

Phone: _____

주소명(한글): _____ 주소: _____

(영문): _____ City _____ State _____ Zip _____

업종: _____

- 영문은 대문자로 기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규 또는 변경 사항이 있는 업소에서는 내년도 개정판을 위해 지금 곧 수록 신청서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 광고 게재에 대한 상담을 환영합니다.



Tel: 714.530.1367 / Fax: 714.530.6473

11501 Brookhurst St. #202., Garden Grove, CA 92840

townnewsusa.com

